



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
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

시편 49편 20절

인간, 두 개의 길

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,
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.
그러나 성경은 ‘깨달음’이 없으면
그 존귀함이 무너지고,
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
없다고 경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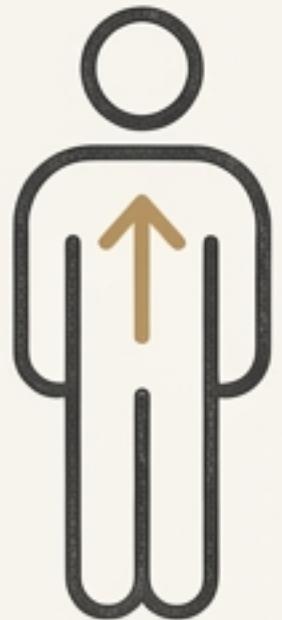
존귀

멸망

무엇이 존귀한 ‘사람’과 멸망하는 ‘짐승’을 가르는가?
이 ‘깨달음’의 정체는 무엇인가?



가장 근원적인 차이: 영혼과 각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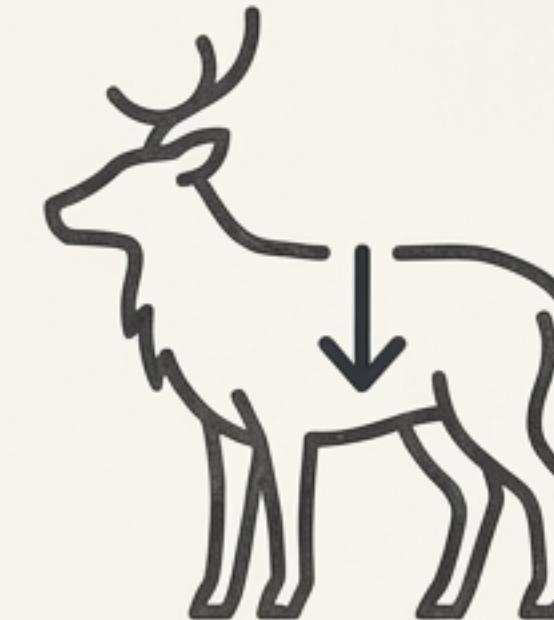


사람

사람: 영혼 (靈魂)

영(靈)에 속한 혼.

하나님과 영원을 인지하는 영적인 존재.



짐승

짐승: 각혼 (覺魂)

육체(肉體)에 속한 혼.

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육적인 존재.

두 영혼, 두 개의 종착지

“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”

- 전도서 3장 21절



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사람과 짐승 모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. 그러나 그 혼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. 깨닫지 못하는 것은, 영혼의 목적지를 잊고 짐승처럼 땅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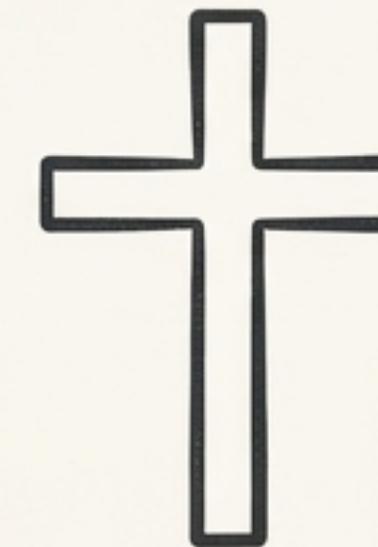
멸망하는 짐승이 아닌,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깨달음

1.



하나님과 영생의
실재를 깨닫는다.

2.



유일한 구원자
예수 그리스도를
깨닫는다.

3.



모든 것의 주인이
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.

1. 첫 번째 깨달음: 하나님과 영생을 아는 것

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생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.
이것이 짐승과 구별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.

- 짐승은 본능에 따라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. 내일 아침을 위해 기도하거나,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애완동물은 없습니다.
- 하나님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‘죽으면 그만이지’라고 말합니다. 이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.

“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”

- 히브리서 9장 27절

인류 최초의 예배: 가인과 아벨의 선택

아벨의 제사



재물: 양의 첫 새끼 (피의 제사)

의미: 하늘나라의 어린 양,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. 하나님의 공로를 높이는 예배.

결과: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.

가인의 제사



재물: 땅의 소산 (노력의 결과물)

의미: 자신의 수고와 공덕을 자랑함. 자기를 높이는 예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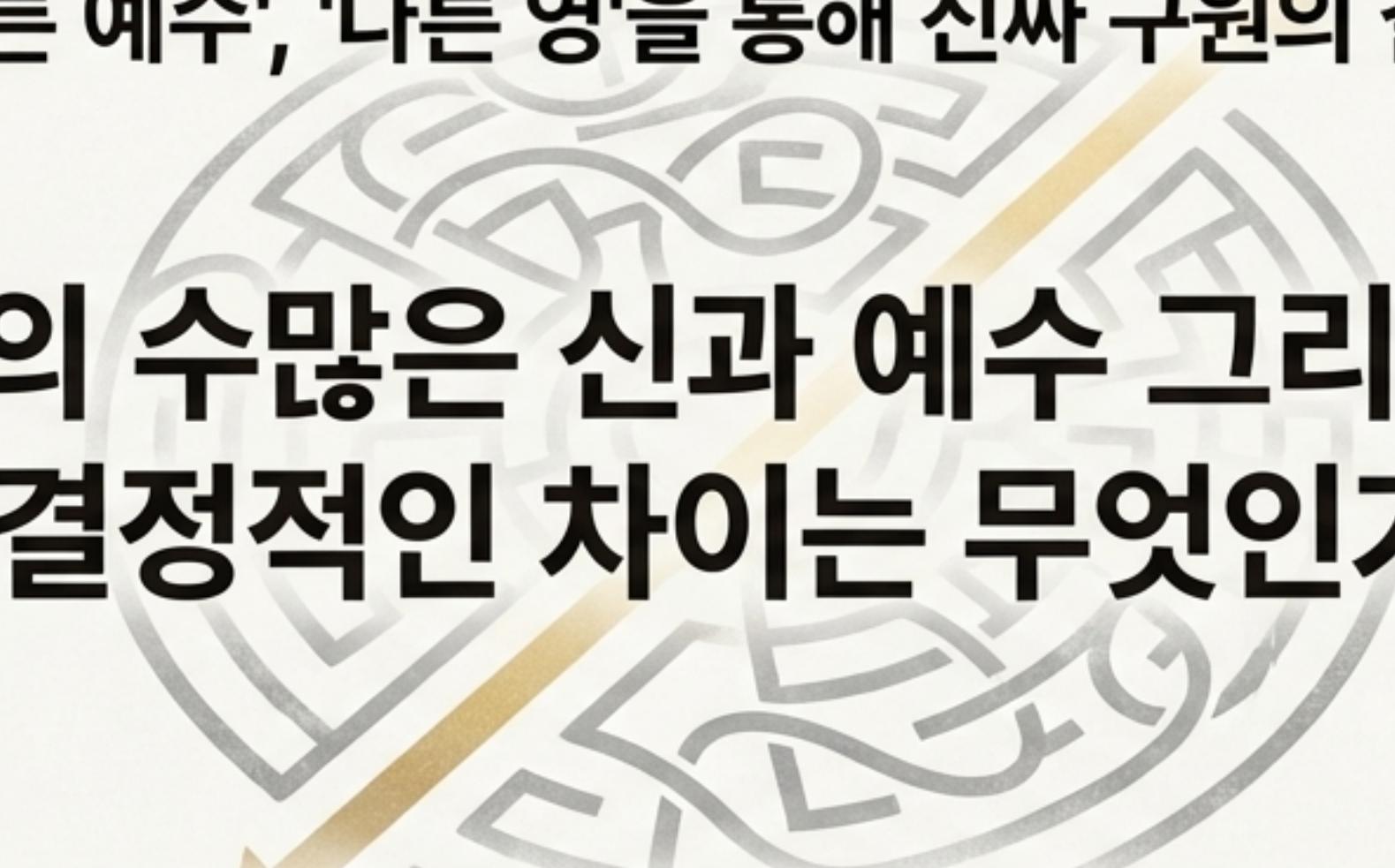
결과: 하나님의 받지 않으심.

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,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아벨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

2. 두 번째 깨달음: 진정한 구원자를 아는 것

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.

그러나 마귀는 '다른 예수', '다른 영'을 통해 진짜 구원의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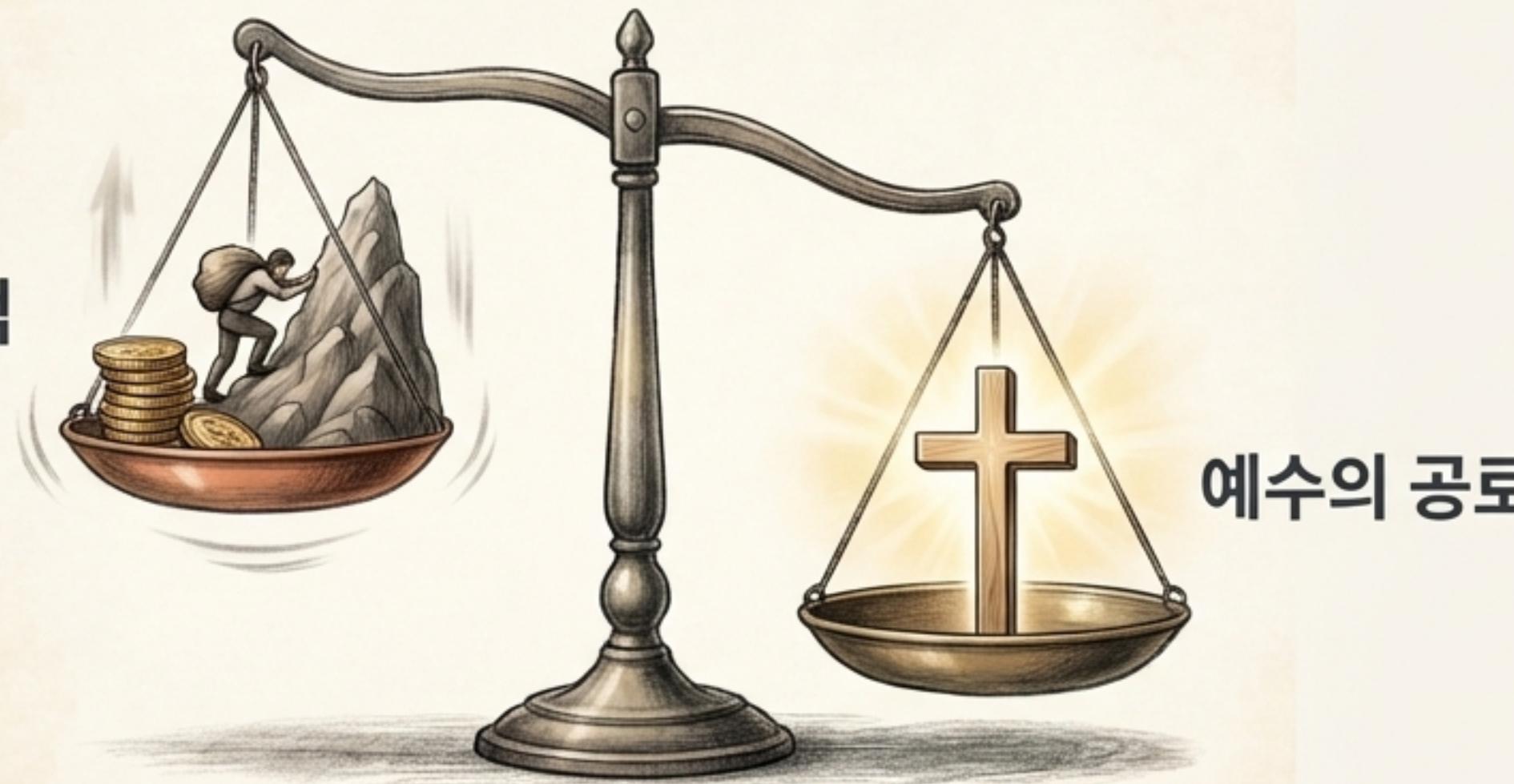
세상의 수많은 신과 예수 그리스도의
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?

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

-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

구원의 두 갈래 길: 은혜인가, 공덕인가?

자기의 공덕



세상의 종교

요구 : 자기의 공덕 (Self-Merit / Works)

방식 : 고행, 노력, 선행을 쌓아 구원(극락)에 이르려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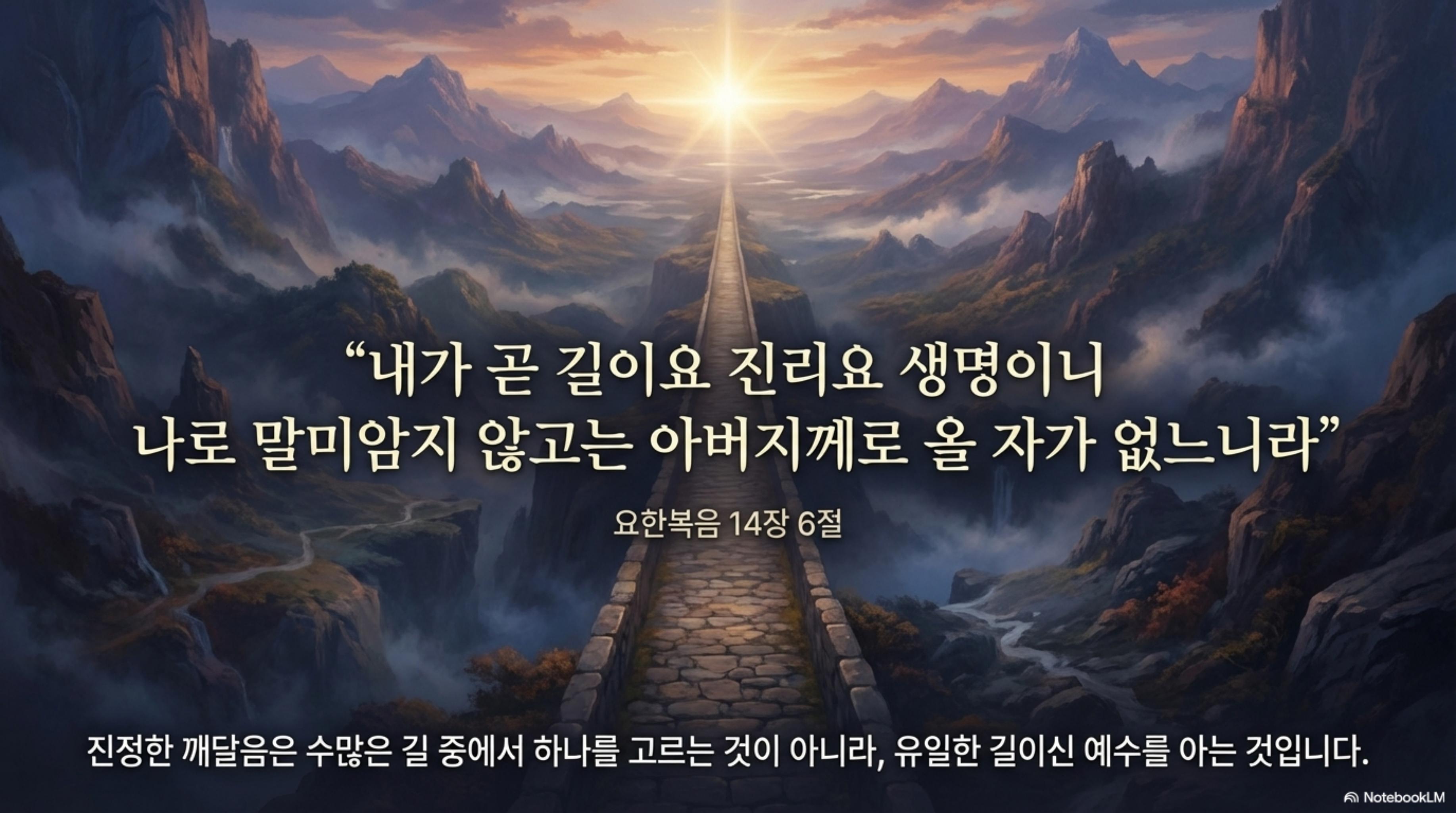
근원 : 인간의 노력을 자랑하는 ‘가인의 제사’.

예수 그리스도의 복음

선물 : 하나님의 은혜 (God's Grace)

방식 :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.

근원 :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‘아벨의 제사’.



“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
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”

요한복음 14장 6절

진정한 깨달음은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,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.

세 번째 깨달음 :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는 것

“내 것”

→ 교만, 욕심,
감사 없음, 다툼

하나님의 것

→ 청지기 의식,
감사, 두렵고 떨림



자녀, 배우자, 재물,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'내 것'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.
모든 것이 잠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을 때, 우리는 비로소 겸손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

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의 차이

내 것이라 생각할 때

- 자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.
- 배우자를 소유물처럼 대하며 폭행한다.
- 재물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.
-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 감사가 없다.

결론: 짐승의 본능

하나님의 것이라 깨달을 때

-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된다.
- 배우자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한다.
-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.
-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.

결론: 사람의 도리

진정한 깨달음의 세 기둥



깨달음 1: 하나님과 영생

‘죽으면 끝’이라는
생각을 버리고,
영원한 심판과
생명이 있음을 안다.

깨달음 2: 예수 그리스도

나의 공덕이 아닌,
오직 **예수의 공로**로만
구원받음을 안다.

깨달음 3: 하나님의 주권

내 인생의 모든 것이
내 것이 아닌,
하나님의 소유임을
안다.

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?

멸망하는 짐승의 길

- 깨닫지 못함
- 땅의 것을 구함
- 자기를 자랑함
- 결국 흙으로 돌아가 사라짐



존귀한 사람의 길

- 깨닫는 삶
- 하늘의 것을 구함
- 하나님을 자랑함
-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감

존귀한 사람이란,
하나님과 영생을 깨닫고,
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며,
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
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.

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.